

2. 선교사 배우자의 고뇌: 난 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Go!



윌리엄 캐리의 아내 도로시(Dorothy)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은 배우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도로시는 남편에게 선교지에 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윌리엄이 속해 있는 선교회나 예비 선교사팀 동료에게도 가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다. 도로시는 4개월 동안이나 선교지로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심지어 윌리엄과 장남이 도로시와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선교지로 향해가는데도 따라 나서기를 거부했다. 도로시를 거둬서 설득하던 도중에 그녀는 선교팀의 한 동료의 강권에 못 이겨 가기로 동의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선교사로서 좋은 경험이 없었던 도로시는 예상대로 남편 윌리엄이 선교사역을 잘할 수 없게 방해했다. 도로시와 윌리엄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다.

그들이 불화 중에 있을 때에 함께 했던 한 선교사의 남편은 도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도로시는 남편에 대해 아주 불경스러운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내뱉었다...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 잡았고, 또 한 번은 아침 식탁에서 식칼을 들고 외치기를 ‘나가 댕겨라, 이 망나니야! 내가 너의 목을 벨 수도 있어..., 하 나님이 너를 저주하길 바란다...’” 도로시는 가두어 격리될 때까지 윌리엄을 따라다니며 조롱과 폭언을 했다.

물론, 도로시의 경우는 끝내 정신질환으로 생애 말년을 대부분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극단적인 예이다. 도로시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심지어 윌리엄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까지 했었다.

이런 사례가 요즘에도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이 같은 사례가 요즘에도 있을 수 있지만(절대로 ‘절대’란 말은 쓰면 안 된다), 2백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 빈도가 훨씬 낮을 것이다. 다음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예방책들이다.

- 많은 선교단체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선교사에 대한 선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 선교단체에서는 자의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파송하지 않는다.
- 선교사 케어 부서에서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상담과 약물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상담을 제공한다.
- 많은 문화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장기간 동안의 격리된 치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 장치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로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비극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배우자가 선교지에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당신의 가족은 영원히 뿔뿔이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다른 식의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가족 친지들과 후원 교회들이 물심양면으로 그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가고 싶지 않은 배우자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 **새로운 선교단체 New agencies**
도로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새로운 선교단체들은 정책적으로 이런 배우자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금하는 지침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목표를 강조하는 선교단체 Agencies emphasizing goals**
비록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목표들이 꼭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다음 해에 50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목표로 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때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선교사 지원자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라도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이다.
- **교회 Churches**
비록 일부 대형 교회들은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자체 관리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두 세 커플의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 **무소속 선교사 Independent missionaries**
어떤 선교사들은 자신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너무 확고하기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선교지로 가면서 배우자에게 강압적인 동행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독립 선교사들은 비록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단체들에게 헌금을 하는 몇몇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게 된다.

선교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로시는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없었고 선교사가 되는 것조차 원치 않았다. 도로시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세 자녀의 어머니요, 임신한 몸으로 5개월 동안의 바다 항해를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선교사 부부로 헌신한 이들도 자녀들이 생긴 후에는 열악한 현지 생활환경과 교육체계 등으로 인해 다시 그 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
- 장성한 자녀들을 둔 선교사들은 모국에 있는 대학교에 자녀들을 두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
- 손주들이 있는 경우 손주들을 떠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
- 나이 많은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여생을 돌봐 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의 선교에 대한 의견 차이는 그들의 결혼생활에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막상 부부가 둘 다 선교지로 가길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은 “나는 가기 싫어!”라고 말할 수 있다.

- **초등학생 자녀**

친한 친구들의 결을 떠나야 하고, 학교도 바뀌게 되고, 애완 동물을 두고 가야하고, 자기가 쓰던 방을 두고 떠나야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모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한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비록 처음에는 선교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엔 자신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 **십대 자녀**

사춘기 아이들도 비슷한 이유로 선교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기 더 쉽다. 사춘기 자녀들은 인지능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부모와 논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선교지로 떠난 후에도 계속 불만으로 차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부모들의 선교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인 경우 법을 위반한다거나 경찰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딸인 경우는 성적으로 방종하여 임신할지도 모른다.

만약 “난 가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면?

때로 사람들은 “선교지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로 하지는 않지만, 온갖 형태의 수동적인 저항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나타낸다. 이런 행동은 보통 ‘수동-공격적 행동’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드러내놓고 하기 싫다고 거부하기 보다는 그저 일들이 성사되지 않도록 훼방을 놓는다. 이런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권위에 대해 비판적이다.
- 간단한 일들을 거둬 실패한다.
- 의무를 잊어버린다.
- 화를 내며 고집을 부린다.
- 통명스럽게 비꼰다.
- 뒤통수를 친다.
- 불평이 잦고 할 일을 미룬다.
- 일부러 못하는 척 한다.
- 일을 대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 할 수도 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맘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경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최선의 해결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나 상담원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부부가 서로 동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다음 네 가지 선택이 남게 된다.

- **둘 다 본국에 남는다**

부부가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지 않고 고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가지 못했기에 분노가 쌓일 수 있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배우자를 못 가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것은 도로시와 윌리엄이 처음에 선택했던 방식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여행 금지로 이 선택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각자가 원하는 곳에 살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다. 부부 관계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한다.

- **둘 다 떠난다**

이는 도로시가 강압적으로 떠나도록 종용 당할 때 도로시와 윌리엄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다. 이 해결책의 문제점은 강압적으로 떠밀려가야만 하는 사람이 수속 밟는 과정마다 제동을 걸 뿐 아니라, 자기가 강압적으로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분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둘 다 머물고 있다가 떠난다**

만일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될 문제라면 선교를 떠나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당면한 문제가 죽음을 앞둔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몇 년 머물면서 부모를 돌본 후에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를 갈 수 있을 것이다.

- **긍정적인 방향을 권장한다**

자녀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당신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점에 대해 강조한다. 예를 들면, 새 친구, 좋은 음식 등등 (여권에 필요한 또 다른 비자문제나 선교지 지리를 배우는 것 등은 말고...)

- **가족 중 한 명은 남긴다**

때로 10대들은 자기 친구 가족과 함께 고국에 남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10대들은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원할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가족들 모두가 당신이 선택한 방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상과 절충안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생활이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